

## 한국판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 수용 척도(AMMSA-21) 타당화

김수정<sup>1)</sup> 서종한<sup>†</sup>

본 연구는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 수용 척도 AMMSA-21(Acceptance of Modern Myths About Sexual Aggression Scale - 21)을 국내 실정에 맞게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MMSA-21은 성적 괴롭힘, 성희롱,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등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 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AMMSA-21을 국내 정서에 맞게 번역하여, 만 19세 이상의 국내 성인 남녀 605명을 대상으로 일반화부분점수모형,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 측정불변성 검증, 수렴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반화부분점수모형 분석을 통해 원칙도 개발 당시 사용한 예비 문항 29개를 포함한 총 50개의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을 실시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요인 구조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 3개의 요인 구조(피해자 불신 통념, 성적 동의 왜곡 통념, 성적 공격성 정당화 통념)로 구성된 24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셋째, 측정불변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형태 불변성과 약한 불변성은 성립되었으나 강한 불변성은 성립되지 않았다. 넷째, 준거 척도와 수렴타당도 및 상관 분석을 통해 AMMSA-21 척도가 성적 공격성에 대한 통념과 특성을 잘 반영하는 측정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 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AMMSA-21이 성폭력 예방 및 개입 전략의 기초 자료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성적 공격성 통념, 타당화, 일반화부분점수모형

1) 제1저자: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E-mail: kimsujung0806@naver.com

† 교신저자: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E-mail: jonghansea@yu.ac.kr

 Copyright ©2026,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성폭력은 구조적 불평등과 성차별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전 세계적 사회 문제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1992년 UN의 여성 및 아동폭력 방지 선언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어, 1995년 제4차 세계 여성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도미향, 2003).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1990년대 후반 국내에서도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며,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성폭력 특별법’,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법적·제도적 대응이 강화되었다(김재엽, 이서원, 1998).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40,533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경찰청, 2024).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여성의 35%가 일생 동안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García-Moreno et al., 2013), 이는 성폭력이 여전히 전 세계적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국내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적 폭력의 피해 유형은 ‘신체 부위를 자꾸 쳐다보는 행위’가 48.8%로 가장 높았으며, ‘타인의 외모를 성적 대상으로 비유하거나 평가하는 행위’ 39.5%,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 17.8%, ‘성관계 강요’ 14.9%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4). 이는 성폭력의 양상이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성적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적 공격성의 개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적 공격성은 공격성의 하위개념으로 상

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강요, 육체적 힘의 사용, 언어적 압력 및 협박 등을 통해 성행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Krahé & Berger, 2013; Wheeler et al., 2002). 즉, 상대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광범위한 성적 행위로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속임, 심리적 강압, 지위 이용 등 다양한 강압 전략을 통한 성적 행위를 뜻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성적 공격성은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대응이 강화되었음에도 성폭력 문제가 감소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적 공격성은 폭력을 정당화하고 용인하는 인지적 기제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된다(이종욱, 2018).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왜곡된 성적 신념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으며(Wheeler, 2002), 이러한 신념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의 지배와 적대적인 성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와 같은 신념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서혜석, 2006), 나아가 개인의 인지적 판단을 넘어 실제 수사 과정이나 법적 판단 및 배심원 결정 등 제도적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Dinos et al., 2015; Leverick, 2020). 한편, 최근 연구에서는 왜곡된 통념 수용과 성적 공격성이 사회적 요인뿐 아니라 개인의 성격적 특성까지도 관련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어두운 성격 특성이 왜곡된 성적 통념 수용을 예측하고, 적대적 성차별 태도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Brewer et al., 2022; Longpré et al., 2025; Sanchez-Ruiz et al., 2021). 즉, 왜곡된 성적 통념을 많이 수용할수록 적대적 남성성과

공감 능력 부족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피해자 비난 및 책임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이코패시 성향에서 나타나는 낮은 죄책감과 정서적 공감 결여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Debowska et al., 2015). 또한, 일상적 사디즘은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는 성격 특성으로 성적 공격 행동을 정당화하는 인지적 기반을 형성할 뿐 아니라 성적 공격성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Russell, 2016; Russell & King, 2016).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어두운 성격 특성들이 왜곡된 성적 통념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에 따른 성격 기반 접근과 맞춤형 개입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Costa et al., 2023).

이처럼 성적 공격성이 사회문화적·개인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적 공격성 행위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통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적 공격성에 대한 통념이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적 공격 행위를 부정하거나, 경시, 정당화하는 인식 체계로서, 그 범위를 성적 괴롭힘·성희롱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까지 포괄한다(Gerger et al., 2007). 이러한 통념은 성적 공격성 행동을 자연스럽거나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가해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공격 행동을 심화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성적 공격성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동 그 자체보다 이를 정당화하고 가능하게 하는 성적 공격성에 대한 통념 연구가 필요하다.

#### 이론적 배경

#### 기존 강간 통념 평가와 한계

성적 공격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시대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과거에는 이를 주로 야간에 낯선 사람이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강간 상황으로 성적 공격성을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범죄로 협소하게 인식하였다(Anderson, 2007; Gavey, 2018).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적 가치관과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성과 관련된 문제를 개인의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남성 중심적 성 역할과 피해자 책임을 강조하는 태도가 성폭력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변화순 등, 2000; 박명숙 등, 2008).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은 성폭력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 사회가 공유하는 문화적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현상임을 시사한다(Collings, 1997).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여성 운동의 확산과 함께 이러한 인식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성적 공격성의 범위를 낯선 사람에 의한 강간에 국한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 맥락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희롱, 원치 않는 접촉 등 다양한 형태의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연속체적 현상으로 확장되었다(Gavey, 2018; Parrot & Bechhofer, 1991; McMahon & Farmer, 2011).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최근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기존의 문화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최은경, 이경렬, 2020). 이는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재인식하게 하였고, 과거에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거나 공론화되지 못했던 다양한 성폭력 경험을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성적 공격성은 법적·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회적 쟁점으로 확장되었으

며,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켰다. 이처럼 성적 공격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왔으며, 이는 성적 공격성에 대한 문제를 보다 포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하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성적 공격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었음에도 성범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성적 공격성에 대한 인식 속에 내재된 개인의 편견과 사회문화적 통념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인식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강간 통념을 제시해 왔다(Burt, 1980). 초기 강간 통념은 피해자의 복장이나 음주 여부 등을 강간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피해자의 행동이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의 형태로 나타났다(Burt, 1980; Brownmiller, 1993). 그러나 다양한 성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고(이도경, 김형빈, 2022),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통념의 표현 방식 또한 변화하였다. 성에 대한 왜곡된 통념은 단순한 피해자 비난과 가해자 면책을 넘어 피해자의 요구를 과도하다고 평가하고, 성폭력 관련 정책을 불필요하다고 보는 등 보다 은밀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표현의 형태로 재구성되어 나타난다(Ferro et al., 2008; Gerger et al., 2007; Swim et al., 1995). 이러한 통념은 표면적으로는 성 평등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의 왜곡된 성적 통념을 다른 방식으로 재생산하고, 사회적 담론 속에 은폐되어 작동하여 일반인들 또한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된 성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성에 대한 왜곡된 통념 수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강간 통념 수용 척도(Rape Myth Acceptance Scale; RMAS), 일리노이 강간 통념 수용 척도(Illinois Rape Myth Acceptance Scale; 이하 IRMA), 미묘한 강간 통념 수용 척도(Subtle Rape Myths Acceptance Scale; 이하 SRMA), 이석재 강간 통념 수용 척도 등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기존 도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 도구들은 성폭력의 범위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은 강간뿐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강도 강간, 음란 전화 등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며(조현빈, 2006),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또한 집단, 성별, 계층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강간 통념 수용 척도는 강간 사건 발생 여부와 특정 행위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로부터 삼입 중심적 사건에 국한되어 있다(권인숙 등, 2016). 이는 피해자 비난에 한정된 문제의식을 동반할 뿐 아니라 피해 유형에 따른 다양한 특징을 살피기 쉽지 않기에 다양한 성폭력의 피해 현실과 내용을 통념으로 담아내기에는 개념적으로 제한성이 크다(권인숙 등, 2016).

또한, 기존 강간 통념 척도들은 주로 성폭력 피해 자체의 발생 여부, 피해자·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사건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경향이 강했다(권인숙 등, 2016). 선행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성폭력 인식 연구

들은 피해자의 음주 여부, 옷차림의 노출 정도, 물리적 저항의 유무 등 사건을 둘러싼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규명하는 데에만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Gravelin et al., 2019). 이러한 접근은 성적 공격성의 사회문화적 원인을 조망하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개인의 행위로 국한된 해석을 유도할 가능성을 지닌다.

나아가 기존 강간 통념 수용 척도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는 의식이 통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권인숙, 2016). 현재 성폭력 사건의 무고죄 전환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법체계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취급하고 왜곡된 태도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통념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제한적이다(여성신문, 2014.5.15.; 이어진, 2008; 장다혜, 2014). 즉,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2차 피해를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Clay(2019)의 최근 SNS 담론을 분석한 강간 통념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강간 통념 척도들은 허위 고소와 관련된 현대적 통념(예: ‘여성의 성폭력 신고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여성은 이기적인 동기로 남성을 고소한다’)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존 강간 통념 수용 척도들은 피해자에 대한 불신과 허위 고소와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기존 강간 통념 척도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된 통념의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적 성적 통념은 단순한 피해자 비난과 가해자 면책을 넘어 피해자의 요구를 과도하다고 평가하며, 성폭력 관련 정

책을 불필요하다고 보는 등 제도와 사회적 담론 속에 내재된 방식으로 은밀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비지지적인 사회 환경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꺼리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Yamawaki, 2007), 이는 적대적 성차별 태도를 가진 남성들에게서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여성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남성 피해자 의식을 증폭시키며, 결과적으로 성폭력 관련 정책을 특별히 인식하게 만드는 경향을 보인다(석승혜, 2024). 이처럼 통념의 양상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강간 통념 척도들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정책적 맥락에서 형성되는 현대적 통념의 양상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간 사건 중심의 기존 접근을 넘어, 넓은 범위의 성적 공격성에 대한 통념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의 개발과 검증이 필요하다.

### 성적 공격성에 대한 통념

성적 공격성에 대한 통념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강간 통념 척도들이 개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강간 통념 수용 척도들은 성적 공격성의 다양한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적 공격성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물리적 위협, 심리적 조작, 언어적 압력 등 다양한 강압 전략과 성적 행위를 세분화하고(Rosa et al., 2024), 그 조합에 따른 심각도를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Krahé et al., 2021). 이는 성적 강압과 물리적 강간이 서로 다른 차원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성적 공격성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Koss et al., 1988). 이러한 관점에서 Gerger 등(2007)은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 수용 척도(Acceptance of Modern Myths About Sexual Aggression Scale; AMMSA)를 개발하여 넓은 범위의 성적 공격성에 대한 통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 수용 척도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적 공격적 행동을 부정, 경시, 정당화하는 잘못된 통념 체계로서 그 범위를 성적 괴롭힘·성희롱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까지 포괄하여 측정한다. 이는 성폭력을 단순히 개인 간 사건으로 보는 기존 도구의 한계를 보완하며, 사회 제도적·정책적 차원에서의 성적 공격성에 대한 인식까지 파악할 수 있기에 시대적 변화에 따라 수용되는 현대적인 통념을 파악하는 데 높은 유용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Gerger et al., 2007; Payne et al., 1999; Sears, 1988; Swim et al., 1995).

AMMSA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며, 그 타당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어왔다. 먼저, 법적 맥락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판단, 피고의 유죄 판단 및 피해자 비난 태도(Bohner & Schapansky, 2018; Eyssel & Bohner, 2011; Milesi et al., 2020)와 같은 법적 판단 및 배심원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inos et al., 2015; Leverick, 2020). 또한, 강간 성향을 예측하고(Eyssel et al., 2009), 여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매개로 성적 대상화 행동을 설명하는 등(Samji & Vasquez, 2020)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이 적대적인 인지 구조와 행동을 강화하는 인지적 왜곡을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유용한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AMMSA 척도가 개발된 이후 사회적 담론과 성적 공격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기

존 문항이 현대 사회의 통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이에 Bohner 등(2022)은 최신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AMMSA-21을 개발하였다. AMMSA-21은 영어, 독일어, 폴란드어, 스페인어 등 네 개의 언어로 동시에 개발 및 타당화되어 척도의 적용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였으며, 기존 강간 통념 도구에서 측정하지 못했던 허위 고소와 같은 2차 피해 통념과 사회 정책에 대한 제도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도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따라서, AMMSA-21은 기존의 강간 통념 도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대 사회의 맥락에 맞춰 변화된 성적 공격성 통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측정 도구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외에서 사용되는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 수용 척도(Acceptance of Modern Myths About Sexual Aggression Scale-21; AMMSA-21)를 국내 성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 국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전문 패널 업체를 통해 표집하였으며, 총 605명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은 연령 및 성별, 지역 간 편중을 최소화하여 평가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구성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 전, 모든 참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였으며, 개인정보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였다. 이후 연구 참가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완료 후에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성 304명(50.2%), 여성 301명(49.8%)로 구성되었으며, 연령별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20대 120명(19.8%, 남성 60명, 여성 60명), 30대 121명(20%, 남성 61명, 여성 60명), 40대 123명(20.3%, 남성 62명, 여성 61명), 50대 120명(19.8%, 남성 60명, 여성 60명), 60대 이상 121명(20%, 남성 61명, 여성 60명)으로 구성되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 333명(55%), 미혼 231명(38.2%), 별거, 이혼 등의 기타가 41명(6.8%)로 나타났다.

#### 한국판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 수용 척도 (AMMSA-21) 번역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AMMSA-21 문항은 원저자인 Gerd Bohner와의 협력을 통해 번역을 진행하였다. 먼저 AMMSA-21의 모든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 번역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전문가와 임상 범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교신저자의 도움을 받아 역번역이 이루어졌다. 이후 해당 문항을 원저자에게 전달하여 피드백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문화적 맥락에서 어색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본래 문항의 의도를 유지하며 수정 절차를 거쳤다. 또한, 피드백 과정에서 모호하거나 의미 전달이 불분명했던 문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번역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항의 자연스러움과 가독성을 검토하고자 안면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보완과 수정

을 거쳐 최종적으로 AMMSA-21 문항 번역을 완료하였다.

#### 측정 도구

#####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 수용 척도 (Acceptance of Modern Myths About Sexual Aggression Scale-21)

Acceptance of Modern Myths About Sexual Aggression Scale-21(AMMSA-21)은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성적 괴롭힘, 성희롱 및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등 넓은 범위의 성적 공격성 행위에 대한 통념의 수용 정도를 다룬다. AMMSA-21은 기존 AMMSA(Gerger et al., 2007)의 축약 및 개정판으로 최근 공적 담론에서 주목되고 있는 허위 고소와 같은 2차 피해 통념을 포함하여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성적 공격성 통념을 반영한다. 본 척도는 영어, 독일어, 폴란드어, 스페인어 등 총 네 개의 언어로 동시 개발 및 타당화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가장 적합한 문항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기존 21개 문항과 개발 당시 사용한 예비 문항 29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 50개의 문항을 타당화 연구에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Likert식 척도(1점 = 전혀 동의하지 않음부터 7점 = 완전히 동의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을 더 강하게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영어 .93, 독일어 .92, 폴란드어 .93, 스페인어 .94로 네 개의 국가 모두 우수한 내적 신뢰도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6로 나타났다.

### 한국판 미묘한 강간 통념 수용 척도 (K-SRMA)

본 연구에서는 McMahon과 Farmer(2011)가 개발한 미묘한 강간 통념 수용 척도(Subtle Rape Myth Acceptance Scale; SRMA)를 기반으로 유정아와 송원영(2024)이 타당화한 한국판 미묘한 강간 통념 수용 척도(K-SRMA)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일리노이 강간 통념 척도(IRMA)의 문항 중 구시대적 표현을 현대적 언어로 수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간접적인 비난이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K-SRMA는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3로 나타났다.

###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 (SDS-9)

본 연구에서는 Stöber(2001)이 개발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17)를 토대로 배병훈, 이동귀, 함경애(2015)가 국내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SDS-9)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에는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61로 나타났다.

### 양가적 성차별주의 중 적대적 성차별주의

Glick과 Fiske(1996)가 성차별의 양가적 특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2005)이 국내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D)를 사용

하였다. 해당 척도는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는 18문항과 온정적 차별주의를 측정하는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및 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적대적 성차별주의 1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6 ~ .91로 나타났다.

### 일상적 사디즘 성격 척도(Assessment of Sadistic Personality; ASP)

Plouffe 등(2017)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일상적 사디즘(subclinical sadism)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일상적 사디즘 성격 척도(Assessment of Sadistic Personality; ASP)를 사용하였다. 일상적 사디즘은 쾌락이나 지배를 위해 잔인하고, 모멸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에 가담하려는 기질적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가학증의 조종적 특성, 굴욕감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 낮은 공감 능력을 반영하며, 위협, 공격성, 적대감, 굴욕감 등 가학적인 행동을 측정한다. 본 척도는 9문항 단일척도로 Likert식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높은 점수일수록 가학적 성격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Plouffe 등(2017)의 개발 당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의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어두운 4요소 성격 SD4(Short Dark Tetrad). Paulhus 등(2020)이 기존 어두운 3요소 성격(The Short Dark Triad; SD3)에 사디즘을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개발한 어두운 4요소

성격 검사 도구(SD4)를 사용하였다. SD4는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시’, ‘사디즘’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1점 = 매우 동의하지 않음’부터 ‘5점 = 매우 동의함’)로 각 요인당 각 7 문항씩 총 28문항으로 구성된다. Paulhus 등 (2020)의 개발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 )는 ‘마키아벨리즘 .83’, ‘나르시시즘 .78’, ‘사이코패시 .82’, ‘사디즘 .82’으로 나타났다으며,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의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 자료분석

### 일반화부분점수모형(GPCM: Generalized Partial Credit Model)

국내에서 AMMSA-21 척도의 요인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해당 척도가 개발 당시 네 개 국가에서 타당화되었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요인 구조가 보고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선정된 21문항만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척도 개발 단계에서 사용된 전체 예비 문항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요인분석은 총점을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기에 각 문항이 서로 다른 수준의 잠재특성을 지닌 응답자를 얼마나 잘 변별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문항별 난이도 및 변별도와 같은 세부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Hambleton & Swaminathan,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척도 개발 단계에서 사용된 전체 예비 문항을 포함하여, 문항반응이론(IRT: Item Response Theory)분석을 실시하

였다. 문항반응이론은 검사를 구성하는 개별 문항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피험자의 잠재 능력과 문항의 및 변별도 등을 추정하는 분석이다(Korean Society of Educational Evaluation, 2004). 이는 문항에서 피험자의 반응 범주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에 따라 이분문항반응모형과 다분문항반응모형으로 구분된다. 이분문항반응모형(dichotomous IRT)은 피험자의 반응 범주가 두 개인 경우에 적용되며, 다분문항반응모형(polytomous IRT)은 피험자의 반응이 세 개 이상일 때 적용된다(이대용, 2016). 다분문항반응모형에서 문항반응 범주란 각 문항에서 피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수준의 응답 범주를 의미한다. 문항반응 범주는 연속적인 범주를 순서화된 숫자로 점수화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Likert 척도가 있다. 일반화부분점수모형(GPCM: Generalized Partial Credit Model; GPCM)은 다분문항반응모형의 일종으로 각 문항마다 변별도가 다를 수 있도록 하는 변별도 파라미터를 허용함으로써 모든 문항의 변별도를 동일하게 고정하는 부분점수모형(Partial Credit Model; PCM)의 한계를 보완하여 확장된 모형이다. 이는 피험자가 자신의 상태를 여러 범주로 응답한 자료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항의 변별도를 고려하면서도 반응 범주 간 난이도를 서열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응답 과정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능력 수준과 문항의 난이도를 로짓(logit) 값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기에 척도 타당화 연구에서 유용성이 높다(Embretson, 1996). 이는 각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는 물론, 점수 단계별 문턱 값까지 동시에 추정할 수 있어 문항이 응답자의 잠재적 능력에 따라 얼마나 효과적인

으로 구분하는지를 보다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다. 성태제(1998)는 이러한 문항의 속성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언어적 기준에 따라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 범위를 표현하였다. 문항 난이도는 언어적 표현에 따라 ‘매우 쉽다(-2.0 이하)’, ‘쉽다(-2.0 ~ -.5)’, ‘중간이다(-.5 ~ +.5)’, ‘어렵다(+.5 ~ +2.0)’, ‘매우 어렵다(+2.0 이상)’의 다섯 가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문항 변별도는 ‘없다(.00)’, ‘거의 없다(.01 ~ .34)’, ‘낮다(.35 ~ .64)’, ‘적절하다(.65 ~ 1.34)’, ‘높다(1.35 ~ 1.69)’, ‘매우 높다(1.70 이상)’, ‘완벽하다(+ ∞)’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반응이론의 장점을 활용하여 각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측정력이 낮거나 불필요한 문항을 사전에 식별하여 척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AMMSA-21은 각 문항이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피험자의 응답이 세 개 이상의 범주를 갖는 다분문항반응 모형의 형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척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화 부분점수모형(GPCM: Generalized Partial Credit Model)을 적용하였으며, Mplus 8.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탐색적 요인분석 및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

본 연구는 AMMSA-21의 요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SEM)을 활용하였다. AMMSA-21은 개발 당시 네 개 국가에서 동시에 개발 및 타당화되었으며, 국가별 다른 요인 구조가 보고되었다(Bohner et al., 2022). 이에 따라 국내 표본에서도 원칙도와 다른 요인 구조가 도출될 가

능성을 고려하여, 한국 표본을 기반으로 AMMSA-21의 요인 구조를 탐색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분석에는 Mplus 8.3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모수 추정 방법으로는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회전방법으로는 Geomin 회전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이후 관측변수의 이중적재 해소 및 모형 확인을 위해 Mplus 8.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SEM)을 실시하였다(남창형, 서종한, 2024a). ESEM은 탐색적 요인분석(EFA)의 유연성과 확인적 요인분석(CFA)의 구조적 제약을 결합한 분석 기법으로, 두 접근법의 장점을 통합하여 기존 분석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남창형, 서종한, 2024b; 이순목 등, 2016; Marsh et al., 2014). 이는 각 문항에서 발생하는 측정 오차 간 상관을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확인적 요인분석(CFA)의 제약을 보완함으로써 변수 간 복잡성을 유연하게 반영하고 내적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김종규 등, 2015). 또한, 교차 부하를 허용함으로써, 측정 문항들이 여러 요인에 걸쳐 있을 수 있는 복잡한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기에 더 나은 모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척도는 잠재변수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관측변수가 여러 요인에 걸쳐 부하되는 복합적인 구조까지 보다 정확하게 모형화하기 위해 ESEM을 활용하였다. 특히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요인 구조가 사전에 설정된 이론적 가설에 부합하도록 요인부하 행렬을 회전시키고자, ESEM의 회전방법으로 목표회전(target rotation)을 활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차 부하를 최대한 0에 가깝게 추정하면서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Browne, 2001; Morin et al., 2020). 이러한 특성으로 ESEM은 확인적이거나 탐색적인 목적 모두 활용될 수 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장점을 통합하는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남창형, 서종한, 2024b; Browne, 2001; Marsh et al., 2014; Morin et al., 2020; Swami et al., 2023). 모형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 RMSEA, CFI, TLI, SRMR을 활용하였으며, Vandenberg와 Lance(2000)가 제안한 RMSEA 값이 .08 이하, CFI, TLI 값이 .90 이상, SRMR 값이 .80 이하일 때,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ESEM 측정불변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ESEM으로 확인된 AMMSA-21이 성별에 따라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Mplus 8.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불변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불변성이 갖춰지지 않은 척도를 사용할 경우 집단 간 점수 차이가 실제 특성 차이인지, 혹은 측정 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Chan, 2000). 따라서 성별 간 불변성을 확인함으로써, AMMSA-21이 성별의 차이가 없이 모두 동일한 요인 구조를 갖는지 혹은 집단 간 편향이 존재하는지 평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해석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집단 분석에서 잠재변인 간 구조와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형태 불변성(configural invariance)과 약한 불변성(weak invariance)을 확보할 것이 권고된다(김수영, 2016; Meredith, 1993; Putnick & Bornstein, 2016; Vandenberg & Lance, 2000).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성별에 따른 AMMSA-21의 요인 구조와 잠재변인 간 관계를 비교하는 데 있으므로, 형태 불변성과 약한 불변성을 성별 간 측정불변성 검증의 최소 기준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형태 불변성은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요인 구조가 집단에서 존재하는지 확인하며, 약한 불변성은 집단 간 요인 구조뿐 아니라 동일한 요인부하량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한다(Swami et al., 2023). 따라서, ESEM 불변성 검증은 성별 간 동일한 요인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써 집단 간 비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남창형, 서종한, 2024b).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통념 수용 정도의 실제적인 차이를 확인하고자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나타난 성별 간 관측점수의 차이가 실제 잠재특성의 차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강한 불변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강한 불변성은 척도의 형태와 요인부하량뿐만 아니라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질편이 집단 간 동일인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불변성이 확보될 경우, 집단 간 관측점수 평균 차이를 잠재변인의 평균 차이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Dimitrov, 2010; Meredith, 1993; Steenkamp & Baumgartner, 1998; Van de Schoot et al., 2012; Widaman & Reise, 1997). 불변성 검증은 주로 RMSEA와 CFI를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TLI는 모델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특성 때문에 집단 구분의 제약이 추가되면서 모델이 단순화되어 적합도가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직관적인 해석이 어렵다. 또한, SRMR은 공분산 구조의 재현성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측정불변성 검증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지

않는다(Asami et al., 2023; Morin et al., 2013). 반면, 적합도 지수 중 CFI는 기준 모델 대비 적합도의 상대적 개선을 반영하고, RMSEA는 추정된 모수를 바탕으로 모델이 모집단의 공분산 구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특히 집단 간 비교를 수행하는 측정불변성 검증 단계에서 CFI와 RMSEA의 적합도 변화는 높은 민감도와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Morin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불변성 단계인 형태 불변성, 약한 불변성, 강한 불변성 검증을 거칠 때마다 모형 사이의 CFI 감소량이 .010 이하이며, RMSEA 증가 값이 .015 이하인 경우 성별 간 불변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남창형, 서종한, 2024b; Morin, 2023; Morin et al., 2016; Morin et al., 2020).

#### 수렴타당도 및 준거 척도와의 상관 분석

AMMSA-21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판 미묘한 강간 통념 수용 척도(K-SRMA)와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 중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성적 공격 행동을 지지하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공격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왜곡된 신념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Gosetti & Manoussaki, 2021; Gutierrez & Leaper, 2024; León & Rollero, 2021).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과 적대적 성차별주의 척도와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AMMSA-21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의 성격 특성을 반영하는 어두운 4요소 성격 SD4와 일상적 사디즘 성격 척도인 ASP를 준거 변인

으로 활용하여 AMMSA-21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어두운 성격 특성이 성적 공격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인지적 기반으로 성적 공격성을 예측한다는 선행 연구를 반영하였다(Russell, 2016; Russell & King, 2016). 즉, 왜곡된 성적 통념을 많이 수용할수록 적대적 남성성과 공감 능력 부족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강간 통념 척도에서의 한계로 지적된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한 응답 왜곡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단축판 척도(SDS-9)를 활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AMMSA-21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고안된 척도이므로(Bohner et al., 2022) 두 변인 간의 상관을 비교함으로써 응답의 왜곡 가능성을 검증하고 척도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결 과

### 일반화부분점수모형(GPCM: Generalized Partial Credit Model)

AMMSA-21의 요인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문항반응이론을 통해 각 문항들의 난이도 및 변별도를 확인하였으며, 표 1에서는 일반화부분점수모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변별도가 '적절하다' 이상, 난이도가 '중간이다' 이상이면서 '매우 어렵다' 이하인 문항을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이는 변별도가 적절한 문항이 피험자의 잠재특성에 따라 응답 확률을 효과적으로 구분하여 측정 정밀성을 확보하는 한편, 난이도가 중간

표 1. 문항반응이론 GPCM 모형을 활용한 문항선별 N=605

문항	변별도	난이도
1. 여성은 선의의 표현을 성희롱으로 쉽게 오해한다.	1.177	0.384
2. 여성은 종종 남성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강간 혐의로 고소한다.	0.909	0.303
3. 여성은 가끔 실패한 부부관계를 복수하기 위해 남편을 부부 강간죄로 고소한다.	0.819	0.711
4. 여성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남성들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0.913	0.534
5. 양육권 분쟁에서 여성들은 종종 전 남편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1.009	0.623
6. 정서적 문제가 있는 여성은 종종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다.	0.869	0.083
7. 요즘 강간 혐의 중 상당수가 거짓이다.	1.010	0.696
8. 몇몇 여성들은 강간 피해자인 척하는 것을 즐긴다.	0.866	0.779
9. 여성들은 남성의 폭력 문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1.102	0.244
10. 오늘날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	0.735	0.722
11. 여성은 칭찬을 성희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1.163	0.421
12. 많은 여성들은 남성의 성적인 욕구에 순응하는 것을 좋아한다.	0.855	1.213
13. 강간을 당한 여성은 현재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	0.751	0.842
14. 술을 마신 후 강간을 당한 여성은 더 조심해야 한다.	0.895	0.406
15.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들은 밤에 어두운 골목을 지나는 위험을 감수했다.	1.007	0.631
16. 남성이 여성 파트너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 이는 강간이라 부를 수 없다.	0.774	0.900
17.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들의 지적 능력보다 외모로 칭찬받는 것을 선호한다.	1.242	0.503
18. 여성이 테이트 앱을 통해 남성을 집으로 초대했다면, 이는 그녀가 성관계를 분명히 원한다는 뜻이다.	0.919	0.261
19. 여성이 직접 남성 앞에서 속옷 차림을 드러냈다면, 성관계를 원하는 것이 확실하다.	0.789	0.110
20. 술자리가 끝난 뒤, 여성이 남성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성관계를 원한다는 것이다.	0.988	0.216
21. 여성이 남성의 키스나 은밀한 접촉을 허용하면 그녀는 그 이상을 기대한다.	1.148	0.125
22. 첫 데이트에 남성을 집으로 초대하는 여성은 그와 성관계 하기를 원한다.	1.001	0.294
23. 많은 여성들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성폭력을 유발한다.	1.110	0.568
24. 일정 수준의 스킨십이 이루어지면 성관계를 피할 수 없다.	0.912	0.648
25. 여성이 공격적인 남성과 함께 산다면,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다.	0.762	1.545
26. 술에 취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면, 여성도 일부 책임이 있다.	0.997	0.855
27. 여성은 남성과 연인 관계를 시작할 때, 남성이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0.741	0.718
28. 연인 관계에서 남성이 주도하고, 여성이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0.696	0.885

이상인 문항이 표본의 평균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함으로써 척도의 대표성을 지닐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50개의 문항에서 28개의 문항을 선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문항반응이론 중 하나인 일반화 부분점수모형 분석을 통해 문항의 변별도 및 난이도를 검증한 후, 부적합 문항을 제외한 상태에서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 표 2는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통해 도출된 모형적합도 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3요인 구조의 경우 RMSEA 값이 0.079, CFI 값이 0.920, TLI 값이 0.898, SRMR 값이 0.035로 나타났으며, 4요인 구조의 경우 RMSEA 0.065, CFI 0.950, TLI 0.930, SRMR 0.025로 나타났다. 4요인 구조의 경우 3요인 구조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모형적합도를 보였으나, 특정 요인에 관측변수가 2개만 적재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문항의 수가 3개 미만인 요인은 통계적으로 불안정하여 해석 가능성과 재현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개 이상의 문항이 요인에 안정적으로 적재될 때, 보다 신뢰로운 요인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된다(Costello & Osborne, 2005). 따라서 본 연구에

표 2. 탐색적 요인분석(EFA) 모형적합도

요인	$\chi^2$	RMSEA	CFI	TLI	SRMR
1요인	4710	.144	.688	.663	.097
2요인	2427	.104	.849	.824	.058
3요인	1416	.079	.920	.898	.035
4요인	976	.065	.950	.930	.025

서는 각 요인의 충분한 문항 수를 확보하면서도 이론적 구성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3요인 구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3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하위

표 3. AMMSA-21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각 문항별 요인부하량

	1요인	2요인	3요인
A1	.559		
A2	.873		
A3	.910		
A4	.917		
A5	.833		
A6	.759		
A7	.687		
A8	.591		
A9	.658		
A10	.507		
A11	.492		
A12			.517
A13	.518		
A14			.591
A15			.580
A16			.484
A17		.412	
A18		.821	
A19		.941	
A20		.925	
A21		.856	
A22		.892	
A23		.425	.565
A24		.491	
A25			.618
A26			.618
A27			
A28			.410

요인부하량 .40 이상인 경우 볼드체로 표시함.

요인의 요인부하량을 제시한 것으로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인 문항의 경우, 해당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문항 23번은 2요인과 3요인에 이중적재 되었으며, 문항 27번은 어느 요인에도 .4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중적재 및 적재량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 문항을 제외한 후 목표회전을 활용하여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도출된 3요인 구조의 모형적합도를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이 탐색적 요인분석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에는 목표회전을 활용하여 도출된 ESEM 분석의 요인부하량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과 동일하게 대부분 문항이 각 요인에 적절히 적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문항 17번은 요인부하량 값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문항 24번은 탐색적 요인분석(EFA)에서는 2요인에 적재되었으나 ESEM에서는 3요인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구조적 타당도와 요인의 구성개념을 보다 명확히 확보하기 위

표 4. AMMSA-21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 결과

요인	$\chi^2$	RMSEA	CFI	TLI	SRMR
EFA (3요인)	1416	.079	.920	.898	.035
ESEM(3요인)	896	.066	.951	.936	.026

해, 요인부하량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요인 이동이 발생한 문항을 모두 제외하였다.

표 5. AMMSA-21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 요인별 요인부하량

	1요인	2요인	3요인
A1	.615		
A2	.932		
A3	.925		
A4	.957		
A5	.852		
A6	.818		
A7	.748		
A8	.645		
A9	.717		
A10	.530		
A11	.554		
A13	.543		
A17			
A18		.799	
A19		.942	
A20		.906	
A21		.833	
A22		.865	
A12			.522
A14			.604
A15			.583
A16			.500
A24			.646
A25			.409
A26			.684
A28			.702

요인부하량 .40 이상인 경우 볼드체로 표시함.

최종 요인명 명명

한국판 AMMSA-21 척도의 타당화 연구 결과, 국내 표본에서는 원칙도와는 다른 요인 구조가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Gorsuch(1983)은 요인을 명명할 때, 통계적 결과치 모두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을 기준으로 요인명을 명명하였다. 요인 1의 경우, 문항들이 공통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그들의 동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등 성폭력 문제 자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이전 AMMSA 척도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 영역 중 하나로 허위 고소 및 여성이 이기적인 동기로 성적 공격성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통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요인 명을 피해자 불신 통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의 경우, 문항들은 모두 특정 상황적 단서를 여성의 명백한 성관계 동의 신호로 잘못 해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여성의 특정 행동이나 주어진 상황을 성적 의도로 단순화하여 이를 성적 동의라고 인식하거나 여성이 남성과의 성적 관계를 유인했다는 통념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요인 명을 성적 동의 왜곡 통념으로 명명

하였다. 요인 3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는 인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성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통념을 기반으로 성적 공격성 행동을 정당화하고, 남성의 공격성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인지적 구조를 반영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요인을 성적 공격성 정당화 통념이라고 명명하였다.

AMMSA-21 ESEM 측정불변성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도출된 3요인 구조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와 구조적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t$ 검증과 측정불변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과 여성 간의 AMMSA-21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 $M = 3.83, SD = 0.96$ )은 여성( $M = 2.95, SD = 1.20$ )보다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t = 9.92, p < .01$ ), 하위요인 점수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피해자 불신 통념(요인 1),  $t = 11.8, p < .01$ , 성적 동의 왜곡 통념(요인 2),  $t = 5.71, p < .01$ , 성적 공격성 정당화 통념(요인 3),  $t = 6.69, p < .01$ ). 측정불변성 검증을 통해 나타난 RMSEA, CFI의 값은 표 7에 제시하였으

표 6. 성별에 따른 AMMSA-21 비교 분석

	남성 (N=304)		여성 (N=301)		$t$	$df$
	$M$	$SD$	$M$	$SD$		
AMMSA-21	3.83	0.96	2.95	1.20	9.92**	573.63
요인 1	3.98	1.06	2.90	1.19	11.8**	591.13
요인 2	4.05	1.29	3.36	1.66	5.71**	565.14
요인 3	3.30	1.19	2.63	1.26	6.69**	600

주. n=605 \* $p < .05$ , \*\* $p < .01$

표 7. AMMSA-21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 불변성 검증 3단계

요인	CFI	RMSEA	ΔCFI	ΔRMSEA
형태불변성	.918	.071		
약한불변성	.916	.067	-.002	-.004
강한불변성	.902	.070	-.014	.003

ΔCFI ≤ .01, ΔRMSEA ≤ .015일 경우 각 단계의 불변성이 성립

며, 단계별로 ΔCFI 값이 .01 이하 감소하며, ΔRMSEA 값이 .015 이하인 경우 측정불변성 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형태 불변성과 약한 불변성은 성립되었으나 강한 불변성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는 성별 간 요인 구조와 요인부하량의 동등성을 확보하여 요인 간 관계 비교는 가능하나 문항의

응답 기준점의 차이로 인해 집단 간 평균 비교 해석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수렴타당도 및 준거 척도와의 상관 분석

AMMSA-21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판 미묘한 강간 통념 수용 척도(K-SRMA),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의 하위요인 중 적대적 성차별주의 척도(HS), 일상적 사디즘 척도(The Assessment of Sadistic Personality, ASP), 어두운 4요소 성격 SD4(Short Dark Tetrad)와의 상관을 표 8에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판 미묘한 강간 통념 수용 척도(K-SRMA)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두 변인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728, p < .01$ ). 이는 AMMSA-21이 K-SRMA와 유사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성에

표 8. AMMSA-21 및 수렴타당도 척도 변수의 기술 통계와 상관 분석 결과

척도	하위요인	M	SD	AMMSA-21	F1	F2	F3
1 AMMSA-21	총점	3.39	1.17	1	.919**	.809**	.869**
2	피해자 불신 통념	3.45	1.25	.919**	1	.585**	.681**
3	성적 동의 왜곡 통념	3.88	1.63	.809**	.585**	1	.654**
4	성적 공격성 정당화 통념	2.97	1.27	.869**	.681**	.654**	1
5 K-SRMA	총점	2.74	.788	.728**	.615**	.662**	.655**
6 SDS-9	총점	3.35	.449	-.121**	-.111**	-.032	-.165**
7 HS	총점	2.45	.799	.749**	.734**	.550**	.626**
11 ASP	총점	1.80	.645	.324**	.322**	.125**	.356**
12 SD4	MAC	2.60	.772	.256**	.260**	.149**	.235**
13	NAR	2.36	.800	.213**	.199**	.131**	.219**
14	PSY	2.00	.724	.339**	.327**	.187**	.350**
15	SADI	1.98	.747	.391**	.385**	.230**	.376**

\* $p < .05$ , \*\* $p < .01$ . K-SRMA = 한국판 미묘한 강간 통념 수용 척도, HS = 적대적 성차별 주의, SDS-9 =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MAC = 마키아벨리즘, NAR = 나르시시즘, PSY = 사이코패시, SADI = 사디즘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지적 성향과 왜곡된 성적 통념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대적 성차별 주의(HS)와 AMMSA-21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AMMSA-21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높은 정적 상관( $r = .749, p < .01$ )을 나타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성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성적 공격성에 대한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적대적 태도가 성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박경, 2008; Malamuth et al., 1991; Mosher & Sirkin, 1984). 나아가 일상적 사디즘 척도(ASP)는 AMMSA-2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r = .324, p < .01$ )을 나타냈으며, 어두운 4요소 성격(SD4)의 하위요인인 마키아벨리즘( $r = .256, p < .01$ ), 나르시시즘( $r = .213, p < .01$ ), 사이코패시( $r = .339, p < .01$ ), 사디즘( $r = .391, p < .01$ )과의 관계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와의 관계에서는 아주 약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121, p < .01$ ). 이는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을수록 성적 공격성에 대한 통념 수용 수준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해당 변인이 본 척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 논 의

본 연구는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 수용 척도(AMMSA-21)를 국내 만 19세 이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AMMSA-21의 경우 개발 당시 네 개의

국가에서 동시에 개발 및 타당화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국가별 다른 요인 구조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척도 개발 당시 사용된 50개의 전체 문항을 바탕으로 국내에 가장 적합한 요인 구조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항의 질을 점검하기 위해 문항반응이론 중 하나인 일반화부분점수모형(GPCM: Generalized Partial Credit Model)을 활용하여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28개의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후 선별된 문항을 기반으로 EFA 및 ESEM(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SEM)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통해 요인부하량이 .40 미만이거나 이중적재된 문항을 제외하였으며, 이어서 수행된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분석에서는 요인부하량이 기준을 충족되지 않은 문항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상이한 요인에 적재된 문항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24개의 문항이 선정되었으며, 모두 3요인 구조에 안정적으로 적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부분점수모형을 활용하여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산출하였으며, 성태제(1998)가 제시한 언어적 기준에 따라 문항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22문항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외되었다. 난이도 수준이 보통보다 낮게 나타난 문항은 오늘날 다수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전형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어, 응답자의 능력 수준을 효과적으로 변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변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문항들은 인접한 반응 범주에 속한 응답자들의 능력 차이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강간은 주로 정신질환자나 낮은 사회계층의 남성이 저지른다'와 같은 진

술은 응답자 대부분이 쉽게 동의할 수 있어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은 동시에, 응답자 간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변별도 또한 매우 낮은 문항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강간범을 병리적 이거나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한정하는 오래된 사회적 통념을 반영하며(Burt, 1980), 이러한 통념은 시대적 인식 변화와 성폭력 예방 교육의 확산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성폭행을 허위로 고소한 사람은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 문항 역시 난이도와 변별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문항이 허위 고소와 관련된 통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이를 '거짓 고소에 대한 도덕적 처벌'이라는 상식적 명제로 해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문항은 성적 공격성에 대한 통념을 반영하기보다는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상식에 근거한 자동적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원칙도에서 의도한 통념의 측정 기능이 약화되어 난이도와 변별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진행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대부분의 문항이 안정적으로 적재되었으나 일부 문항은 기준값에 미달하거나 이중적재 양상을 보여 제외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표현의 모호성 및 개념적 중첩으로 인해 응답자에게 일관된 해석을 유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많은 여성들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성폭력을 유발한다.' 문항의 경우, 피해자의 옷차림을 성적 동의의 암묵적 표시로 오해하는 동시에,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성적 공격성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인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하나의 문항에 성적 동의 왜곡과 성적 공격성 정당화라는 두 통념 체계가 혼재되어 있어 이중적재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진행한 ESEM 분석에서도 탐색적 요인 분석과 동일한 요인 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일부 문항은 EFA 결과와는 다른 요인에 적재되거나 요인부하량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문항을 제외하였다. 특히 '일정 수준의 스킨십이 이루어지면 성관계를 피할 수 없다.' 문항의 경우 EFA 분석에서는 2요인에 적재되었으나, ESEM 분석에서는 3요인에 적재되는 요인의 이동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문항이 내용적으로 두 구성개념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스킨십이 이루어지면'이라는 표현은 여성의 행동을 성적 의사 표현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전제를 포함하여 이를 성적 동의로 오인할 수 있다는 통념과 연결되는 반면, '성관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스킨십 이후에 성관계가 불가피하거나 당연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전제함으로써, 성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내포한다. 이처럼 본 문항은 동의의 해석에 관한 인지적 왜곡과 성적 행동의 정당화라는 서로 구분되는 두 구성개념을 동시에 포함하여 응답자가 문항을 응답할 때 어느 구성개념에 근거하여 판단하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내용적 중첩은 요인분석에서 문항이 특정 요인에 안정적으로 적재되지 않고, 요인의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 간 변별성과 정확한 척도의 해석 가능성을 위해 해당 문항을 제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문항과 같이 개념적 경계가 중첩되는 문항에 대해 보다 명확히 구분된 차원으로 수정하거나, 언어적 표현을 단순화하여 응답자의 인지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모두 .4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였고, 모형적합도 역시 양호하여 안정적인 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척도는 성적 공격성 통념의 다차원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AMMSA-21을 활용하여 측정불변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단계의 불변성 검증(형태 불변성, 약한 불변성)에서 타당성을 입증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일반인 집단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AMMSA-21이 성별에 따른 통념 수용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측점수 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점수 상의 차이가 실제 잠재특성의 차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강한 불변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강한 불변성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집단 간 요인 구조와 요인부하량은 동일하게 작동하지만, 문항의 응답 기준점(절편)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강한 불변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집단 간 관측점수 평균 차이를 잠재요인의 평균 차이로 직접 해석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른다고 보고한다(Meredith, 1993; Van de Schoot et al., 2012). 즉,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별 간 AMMSA-21 총점 및 하위요인 점수의 평균 차이는 잠재요인의 실제 평균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집단 간 응답 기준점 차이에 따른 결과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도구의 성별에 따른 점수 수준의 비교에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ESEM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3요인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원칙도의 요인 구조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칙도 개발 당시, 국가별로 다차원적 요인 구조가 나타났으나 일부 문항의 이중적재 및 요인 해석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단일차원의 요인 구조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적 공격성에 대한 통념이 다양한 형태의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즉, 각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부정하는 사회적 통념은 단일 차원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다차원적 속성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일리노이 강간 통념 척도(IRMA) 개발 과정에서 논의되었듯이, 왜곡된 성적 통념은 본질적으로 다차원적 기능을 지니며 단일차원으로 접근할 경우 다양한 영역의 측정이 어려워 신뢰성이 의심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Lonsway & Fitzgerald, 1994; Payne et al., 1999). 이러한 선행 논의를 고려할 때, 성적 공격성에 대한 통념 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기존 강간 통념 척도보다 폭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차원적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3요인 구조를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불신 통념(요인 1)은 여성이 성희롱·성폭력 경험을 과장하거나 쉽게 오해하며, 남성에게 해를 가하거나 사회적 이익을 얻기 위해 성적 공격성을 허위로 고소한다는 등의 피해자에 대한 불신을 담고 있는 통념을 반영한다. 이러한 통념은 피해자의 진술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성폭력 문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피해자 불신 신념

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원칙도 개발 당시 제기되었던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 사회적 담론을 반영한 구성개념에 해당한다. 성적 동의 왜곡 통념(요인 2)은 여성이 특정 상황적 단서나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이를 성적 동의의 표현으로 해석하고, 결과적으로 여성이 성적 관계를 원했다는 판단으로 왜곡한다는 통념을 반영한다. 즉, 여성이 남성을 집에 초대하거나 스킨십을 허용한 행동을 성적 신호로 인식함으로써 성적 동의의 기준을 왜곡하는 인지적 오류를 포함한다. 이러한 성적 동의 왜곡 통념은 성적 공격성이 발생하기 이전의 판단 과정에서 해당 상황을 여성이 유발하거나 동의한 맥락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성적 공격성 정당화 통념(요인 3)은 성적 공격성 발생의 원인을 가해자의 행위가 아닌 상황적 맥락이나 관계 내 위치로 귀인함으로써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신념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공격적인 남성과의 동거, 음주 상태와 같은 상황적 요인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가하거나 성적 강압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포함한다. 아울러 연인 관계에서 남성이 주도하고 여성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성별 권력 규범을 전제하는 등의 이데올로기적 통념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인식은 성적 공격성을 개인의 선택이나 관계 규범의 결과로 환원함으로써 가해자의 범죄적 책임을 약화시키고, 남성의 성적 요구나 공격성을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인식하게 만드는 성적 공격성 정당화 신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3요인 구조는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이는 성폭력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AMMSA-21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판 미묘한 강간 통념 수용 척도(K-SRMA), 적대적 성차별주의(HS), 일상적 사디즘 성격 척도(ASP), 어두운 성격 4요소(Short Dark Tetrad; SD4)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AMMSA-21과 준거 척도 간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적대적 성차별주의 척도와와의 관계에서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성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많이 내면화할수록 성별 관계에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다는 주장(Berk, 2015)과 성에 대한 적대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한다(이정원 등, 2009). 한편, AMMSA-21과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의 결과에서는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원칙도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문항을 설계하였고 실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서구 문화와 달리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두드러지는 전통적 성 역할 인식과 체면 문화(강길호, 2009)와 같은 문화적 특수성에 기인할 수 있다. 즉, 응답자들이 자신의 실제 신념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는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주제가 성적 공격성에 대한 통념이라는 민감한 영역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AMMSA-21은 국외에서 개발된 도구를 번안한 것이므로, 한국 사회의 문화적 차이를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격적인 성향 및

낮은 공감, 냉담함 등 어두운 성격 특성과의 관련성 검증에서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성적 공격성에 대한 통념이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 개인의 공격적 성향 및 심리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가학적 성향이 높고 공감 능력이 낮은 개인일수록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 불신 통념과 성적 공격성 정당화 통념은 일상적 사디즘 성격 척도(ASP)와 어두운 4요소 성격(SD4) 중 사이코패시 및 사디즘 하위 요인에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공격적 행동을 자연스럽게 정당화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는 태도가 낮은 공감 능력 및 냉담함과 같은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 성향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남창형, 서종한, 2024b)와 일치한다. 즉, 이기적이고 냉담하며 타인을 조종하는 성향을 지닌 사이코패시 특성(Miller & Lynam, 2015)은 성적 공격성에 대한 통념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일상적 사디즘과 적대적 남성성은 성폭력과 관련이 깊으며(Russell, 2016), 특히 사디즘 성향이 폭력적 행동 또는 성범죄 재범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ngston et al., 2010). 이는 성적 공격성 통념이 잠재적 폭력 성향과 결합될 경우 실제 폭력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 수용 정도를 측정할 수 있

는 AMMSA-21 척도를 타당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석재의 강간 통념 척도는 국내 문화에 맞게 개발되었으나 강간 사건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김형빈 등, 2022; 조은혜, 장진이, 2022). 반면 AMMSA-21은 사회문화적 담론 속에 내재된 미묘한 통념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성적 공격성과 2차 피해에 대한 통념까지 포함함으로써 기존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성적 공격성에 대한 통념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성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AMMSA-21은 기존 강간 통념 척도가 포착하지 못한 사회 제도적 통념까지 실증적으로 다룰 수 있어 반(反)폭력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Saldarriaga et al., 2020).

둘째, AMMSA-21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는 문화 간 비교 연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척도는 서구 문화권 네 개의 국가에서 동시에 개발 및 타당화되었으나, 현재까지 동양권에서는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AMMSA-21의 한국판 타당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AMMSA-21의 측정 구조가 한국 문화적 맥락에서도 타당하게 적용됨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권에서 수행된 연구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Bohner 등(2022)이 제안한 바와 같이, 다국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적 공격성에 대한 통념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는 연구에 한국 자료를 포함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대규모 비교 연구의 확

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준거 변인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과 일상적 사디즘 및 어두운 성격 특성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강간 통념과 자기애의 관계에 주로 초점을 두었던(박갑제, 임성문, 2013; 홍연주, 이주영, 2019)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이 일상적 사디즘, 사이코패시 등 어두운 성격 특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사디즘과 사이코패시가 성폭력의 재범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Douglas et al., 2006; Kingston et al., 2010), AMMSA-21은 단순히 태도 측정을 넘어 재범 위험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고위험군을 식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 수용도가 높은 개인 중에서도 어두운 성격 특성을 함께 보이는 집단을 조기 선별함으로써, 성격적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개입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성적 공격성과 관련된 부적응적 행동의 예방 및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데 실무적 의의를 지니며, 향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AMMSA-21 척도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일반화부분점수모형과 EFA, ESEM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요인분석은 척도의 내적 일관성과 요인 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각 문항의 기능적 특성과 변별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반면, 문항반응이론에 기반한 일반화부분점수 모형은 문항별 난이도와 변별도를 동시에 추정함으로써, 각 문항이 응답자의 잠재특성

수준에 따라 얼마나 유의하게 작동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병행은 AMMSA-21의 구조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항 수준의 적절성까지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본 척도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모두 갖춘 도구임을 입증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AMMSA-21은 남성을 가해자, 여성을 피해자로 설정한 구조를 전제로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을 측정한다. 이는 원칙도 개발 당시 의도된 설계이나, 성폭력 담론이 확장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특히 남성 피해자나 동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성적 공격성과 관련된 통념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척도를 사용할 때에는 그 결과를 모든 유형의 성적 공격성에 대한 통념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본 척도를 남성 피해자 관련 통념을 측정하는 별도의 도구와 함께 활용하거나, 특정 맥락(예: 동성 관계)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질적 연구와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이나 제도적 환경에서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성에 대한 왜곡된 통념은 사법체계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실제 수사과정이나 법적 판단 등 실제 제도적 의사결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나아가 이러한 성에 대한 왜곡된 통념은 개인의 태도 수준을 넘어 사회 제도나 권력 관계 속에서 재생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왜곡된 통념이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하

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AMMSA-21을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제도적 환경을 고려한 표본에 적용함으로써, 성적 공격성에 대한 현대적 통념이 사회 제도 및 문화적 담론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보다 폭넓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AMMSA-21 척도는 국외에서 개발된 원척도를 번안한 도구이므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한국 사회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는 체면 문화가 강하게 작동하며(강길호, 2009), 응답자가 자신의 실제 신념보다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서구 문화권에 비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집단 내 조화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강하게 작용하기에(Schreier et al., 2010), 사회적 관계나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응답자가 실제 신념보다 더 조심스럽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문화적·심리적 요인을 반영하여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부합하도록 척도를 재검토하고, 면담 기반의 질적 접근을 병행하여 문항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길호 (2009). 양자체면이론: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이론화의 한 시도. *한국소통학보*, 106-131.
- 경찰청 (2024). *성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경찰청.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학지사.
- 김수희 (2014년 5월 15일).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고죄 적용 결사반대.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79>
- 김종규, 이순목, 윤창영 (2015). 핵심자기평가의 내적구조 검토: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 (ESEM)의 적용을 통한 선언척도와 실제척도의 차이 검토.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8(3), 355-384.
- 김재엽, 이서원(1998). 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성폭력특별법의 개정방향. *한국청소년연구*, 27, 1-16.
- 권인숙, 이진정, 김선영 (2016).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통념의 2차 피해적 영향 연구. *젠더와 문화*, 9(2), 49-84.
- 남창형, 서종한 (2024a). 한국판 FFMI(Five Factor Machiavellianism Inventory)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7(3), 119-150.
- 남창형, 서종한 (2024b). EPA-SF(Elemental Psychopathy Assessment - Short Form) 국내 타당화 연구. *한국범죄학*, 18(3), 163-201.
- 도미향 (2003). 성폭력 현황에 따른 성폭력특별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8(1), 35-50.
- 박갑제, 임성문 (2013).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 경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1), 45-68.
- 박경 (2008).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간의 관계: 공감 및 강간통념의 중재 및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519-536.
- 박명숙, 한인영, 유서구 (2008).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 사회문화적 관점을 중

- 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6(2), 123-146.
- 변화순, 원영애, 정숙경 (2000).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배병훈, 이동귀, 함경애 (2015). Rasch 모형을 이용한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SDS-9)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6(6), 177-197.
- 서혜석 (2006). 성폭력 가해자의 자기통제감, 자기존중감 및 의사소통기술 향상위한 집단치료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6), 67-88.
- 석승혜 (2024). 성차별주의와 피해자 의식이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통합연구*, 5(1), 1-36.
- 성태제 (1998). 고전검사이론과 문항반응이론에 의한 문항과 검사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143-170.
- 여성가족부 (2024). 2024년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유정아, 송원영 (2024). 한국판 일리노이 강간통념 척도와 미묘한 강간통념 척도의 타당화. *보호관찰*, 125-174.
- 이도경, 김형빈 (2022).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5), 567-581.
- 이대용 (2016). 일반화부분점수모형에 의한 초등학교 교사의교수역량 평가지표 문항특성 탐색. *교과교육학연구*, 20(1), 1-9.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31-148.
- 이순목, 윤창영, 이민형, 정선호 (2016). 탐색적 요인분석: 어떻게 달라지나?. *한국심리학회지*, 35(1), 217-255.
- 이어진 (2008).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무고죄?’”. *나눔터*, 62, 18-19.
- 이정원, 안상수, 김혜숙 (2009).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관련 정책 및 강간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2009(1), 208-209.
- 이중욱 (2018). *군인들의 양성평등의식이 성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조직문화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다혜 (2014). 친고죄 폐지와 성폭력 고소 감소의 의미. *형사정책연구소*, 129, 17-21.
- 조은혜, 장진이 (2022). 한국 성인의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에 따른 군집 유형별 강간통념수용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1), 1-22.
- 조현빈 (2006).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심리의 이해. *한국범죄심리학회지*, 2(2), 39-59.
- 최은경, 이경렬 (2020). 미투 운동의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범죄 국민 인식 연구. *4차 산업혁명 법과 정책*, 1(창간호), 209-240.
- 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교육평가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홍연주, 이주영 (2019). 성적 자기애가 20 대 남녀의 성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4), 485-504.
- Anderson, I. (2007). What is a typical rape? Effects of victim and participant gender in female and male rape percep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1), 225-245.
- Berk, L. (2015). *Child development*. Pearson Higher Education AU.
- Bohner, G., & Schapansky, E. (2018). Law students' judgments of a rape victim's

- statement: The role of displays of emotion and acceptance of sexual aggression myth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and Violence (IJCV)*, 12, a635-a635.
- Bohner, G., Weiss, A., Schirch, C., Zöllner, L., Lipińska, A., Sempere, M. J., & Megías, J. L. (2022). AMMSA-21: a revised version of the Acceptance of Modern Myths About Sexual Aggression Scale in English, German, Polish and Spanish (AMMSA-21: una versión revisada de la escala Aceptación de Mitos Modernos sobre la Agresión Sexual en inglés, alemán, polaco y español).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3), 460-491.
- Browne, M. W. (2001). An overview of analytic rotation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6(1), 111-150.
- Brownmiller, S. (1993).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Y: Simon & Schuster.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230.
- Chan, D. (2000). Detection of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on the Kirton Adaption-Innovation Inventory using multiple-group mean and covariance structure analys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5(2), 169-199.
- Clay, L. A. (2019). *The news through Facebook: Discovering the prevalence of rape myths in user comments*. Doctoral dissertation,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 Costello, A. B., & Osborne, J. (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10(1), 1-9.
- Debowska, A., Boduszek, D., Dhingra, K., Kola, S., & Meller-Prunska, A. (2015). The role of psychopathy and exposure to violence in rape myth accepta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0(15), 2751-2770.
- Dimitrov, D. M. (2010). Testing for factorial invariance in the context of construct valida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3(2), 121-149.
- Dinos, S., Burrows, N., Hammond, K., & Cunliffe, C. (2015). A systematic review of juries' assessment of rape victims: Do rape myths impact on juror decision-ma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43(1), 36-49.
- Douglas, K. S., Vincent, G. M., & Edens, J. F. (2006). *Risk for criminal recidivism. Handbook of psychopathy*, 533-554.
- Embretson, S. E. (1996). The new rules of measure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8(4), 341-349.
- Eyssel, F., & Bohner, G. (2011). Schema effects of rape myth acceptance on judgments of guilt and blame in rape cases: The role of perceived entitlement to judg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8), 1579-1605.
- Eyssel, F., Bohner, G., Süßenbach, P., & Schreiber, P. (2009). Neuentwicklung und Validierung eines szenariobasierten Verfahrens zur Erfassung der Neigung zu sexueller Aggression. *Diagnostica*, 55(2), 117-127.
- Ferro, C., Cermele, J., & Saltzman, A. (2008). Current perceptions of marital rape: Some good and not-so-good news. *Journal of*

- Interpersonal Violence*, 23(6), 764-779.
- García-Moreno, C., Pallitto, C., Devries, K., Stöckl, H., Watts, C., & Abrahams, N. (2013). *Global and regional estimates of violence against women: prevalence and health effec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non-partner sexual viole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 Gavey, N. (2018). *Just sex?: The cultural scaffolding of rape*. London: Routledge.
- Gerger, H., Kley, H., Böhner, G., & Siebler, F. (2007). The acceptance of modern myths about sexual aggression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in German and English.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3(5), 422-440.
- Gorsuch, R. (1983). *Factor analysi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osetti, V., & Manoussaki, K. (2021). Blame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assessing the role of ambivalent sexism on subtle rape myth acceptance. *Advances in Social Sciences Research Journal*, 8(2), 284-295.
- Gravelin, C. R., Biernat, M., & Bucher, C. E. (2019). Blaming the victim of acquaintance rape: Individual, situational, and sociocultural factors. *Frontiers in psychology*, 9, 2422.
- Gutierrez, B. C., & Leaper, C. (2024). Linking ambivalent sexism to violence-against-women attitudes and behaviors: A three-level meta-analytic review. *Sexuality & Culture*, 28(2), 851-882.
- Hambleton, R. K., & Swaminathan, H. (2013). *Item Response Theory: Principles and Applications*. Berlin: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Kingston, D. A., Seto, M. C., Firestone, P., & Bradford, J. M. (2010). Comparing indicators of sexual sadism as predictors of recidivism among adult male sexual offend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8(4), 574-585.
- Koss, M. P., Dinero, T. E., Seibel, C. A., & Cox, S. L. (1988).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Are there differences in the victim's experi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1), 1-24.
- Krahé, B., & Berger, A. (2013). Men and women as perpetrators and victims of sexual aggression in heterosexual and same sex encounters: A study of first year college students in Germany. *Aggressive behavior*, 39(5), 391-404.
- Krahé, B., Schuster, I., & Tomaszewska, P. (2021). Prevalence of sexual aggression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in a German university student sampl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50(5), 2109-2121.
- León, C. M., & Rollero, C. (2021). The role of ambivalent sexism, punitiveness, and ability to recognize violence in the perception of sex offenders: A gender-perspective analysis. *Sexes*, 2(4), 495-508.
- Leverick, F. (2020). What do we know about rape myths and juror decision mak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vidence & Proof*, 24(3), 255-279.
- Longpré, N., Moreton, R. E., Snow, E. J., Kizsel, F., & Fitzsimons, M. A. (2025). Dark traits, harassment and rape myths acceptance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9(4), 352-372.
-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2), 133-164.
- Malamuth, N. M., Sickloskie, R. J., Koss, M. P., & Tanaka, J. S. (1991). Characteristics of aggressors against women: Testing a model using a national sampl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5), 670-681.
- Marsh, H. W., Nagengast, B., & Morin, A. J. (2013). Measurement invariance of big-five factors over the life span: ESEM tests of gender, age, plasticity, maturity, and la dolce vita effects. *Developmental psychology*, 49(6), 1194-1218.
- Marsh, H. W., Morin, A. J., Parker, P. D., & Kaur, G. (2014).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 integration of the best features of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0(1), 85-110.
- McMahon, S., & Farmer, G. L. (2011). An updated measure for assessing subtle rape myths. *Social Work Research*, 35(2), 71-81.
- Meredith, W. (1993). Measurement invariance, factor analysis and factorial invariance. *Psychometrika*, 58(4), 525-543.
- Milesi, P., Süßenbach, P., Bohner, G., & Megías, J. L. (2020). The interplay of modern myths about sexual aggression and moral foundations in the blaming of rape victim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0(1), 111-123.
- Miller, J. D., & Lynam, D. R. (2015). Understanding psychopathy using the basic elements of personality.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9(5), 223-237.
- Morin, A. J., Arens, A. K., Tran, A., & Caci, H. (2016). Exploring sources of construct relevant multidimensionality in psychiatric measurement: A tutorial and illustration using the composite scale of morning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Methods in Psychiatric Research*, 25(4), 277-288.
- Morin, A. J., Myers, N. D., & Lee, S. (2020). Modern factor analytic techniques: Bifactor models, structural equation exploratory modeling (ESEM), and bifactor ESEM. *Handbook of sport psychology*, 1044-1073.
- Morin, A. J. S. (2023).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R.H. Hoyle (Ed.), *Handbook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pp. 503-524). Guilford.
- Morin, A. J. S., Marsh, H. W., & Nagengast, B. (2013).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R. Hancock & R. O. Mueller (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second course* (p. 395-436). Information Age.
- Mosher, D., & Sirkin, M. (1984). Measuring a macho personality constell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8(2), 150-163.
- Parrot, A. & Bechhofer, L. (1991). Acquaintance rape: *The hidden crime*.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Paulhus, D. L., Buckels, E. E., Trapnell, P. D., & Jones, D. N. (2020). *Screening for dark personalities: The Short Dark Tetrad (SD4)*.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7(3), 208-222.

- Payne, D. L.,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9). Rape myth acceptance: Exploration of its structure and its measurement using the Illinois rape myth acceptance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1), 27-68.
- Plouffe, R. A., Saklofske, D. H., & Smith, M. M. (2017). The assessment of sadistic personality: Preliminary psychometric evidence for a new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4*, 166-171.
- Putnick, D. L., & Bornstein, M. H. (2016). Measurement invariance conventions and reporting: The state of the art and future directions for psychological research. *Developmental review, 41*, 71-90.
- Rosa, P. J., Brazão, N., & Carvalho, J. (202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exually aggressive behaviors scale: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in a sample of Portuguese female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8*(12), 1197-1215.
- Russell, T. D. (2016). *The PID-5, everyday sadism, and parental attachment predict sexual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degree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Dakota, OK, U.S.A., 2016.
- Russell, T. D., & King, A. R. (2016). Anxious, hostile, and sadistic: Maternal attachment and everyday sadism predict hostile masculine beliefs and male sexual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9*, 340-345.
- Saldarriaga, L., Rocha, C., Castro, D., Jiménez-Moya, G., Carvacho, H., & Bohner, G. (2020).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among undergraduates at a Chilean un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and Violence, 14*(1), 1-14.
- Sanchez-Ruiz, M. J., El Ahmad, P., Karam, M., & Saliba, M. A. (2021). Rape myth acceptance in Lebanon: The role of sexual assault experience/familiarity, sexism, honor beliefs, and the Dark Tria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0*, 110403.
- Samji, K., & Vasquez, E. A. (2020). The link between myths about sexual aggression and sexual objectification via hostile attitudes toward women.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26*(3), 385-393.
- Schreier, S. S., Heinrichs, N., Alden, L., Rapee, R. M., Hofmann, S. G., Chen, J., & Bögels, S. (2010). Social anxiety and social norms in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countries. *Depression and anxiety, 27*(12), 1128-1134.
- Sears, D. O. (1988). Symbolic racism. In P. A. Katz & D. A. Taylor (Eds.), *Eliminating Racism: Profiles in Controversy* (pp. 53 - 84). Plenum Press.
- Steenkamp, J. B. E. M. & Baumgartner, H. (1998). Assess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cross-national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5*(1): 78-90.
- Swami, V., Maïano, C., & Morin, A. J. (2023). A guide to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SEM) and bifactor-ESEM in body image research. *Body Image, 47*, 101641.
- Swim, J. K., Aikin, K. J., Hall, W. S., & Hunter, B. A. (1995). Sexism and racism: Old-fashioned and modern prejudices. *Journal*

-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2), 199-214.
- Vandenberg, R. J., & Lance, C. E. (2000).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measurement invariance literature: Suggestions,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1), 4-70.
- Van de Schoot, R., Lugtig, P., & Hox, J. (2012). A checklist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4), 486-492.
- Wheeler, J. G., George, W. H., & Dahl, B. J. (2002). Sexually aggressive College males: Empathy as a moderator in the "Confluence Model" of sexu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5), 759-775.
- Widaman, K. F., & Reise, S. P. (1997). Exploring the measurement invariance of psychological instruments: Applications in the substance use domain. In K. J. Bryant, M. Windle, & S. G. West (Eds.), *The science of prevention: Methodological advances from alcohol and substance abuse research* (pp. 281-324),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Yamawaki, N. (2007). Rape perception and the function of ambivalent sexism and gender-role traditional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4), 406-423.

논문 투고일 : 2025. 12. 22

1 차 심사일 : 2026. 01. 19

게재 확정일 : 2026. 02. 15

##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cceptance of Modern Myths About Sexual Aggression Scale-21 (AMMSA-21)

Sujeong Kim

Jonghan Sea

Yeungnam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s to validate the Acceptance of Modern Myths About Sexual Aggression Scale - 21 (AMMSA-21) for use in the Korean context. The AMMSA-21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degree of acceptance of modern myths about sexual aggression, including sexual harassment, sexual bullying, and sexual violence within intimate relationships. In this study, the AMMSA-21 was translated to suit the Korean context, and a generalized partial credit model,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SEM), measurement invariance testing, and convergent validity analysis were conducted on 605 Korean adult men and women aged 19 years or older. First, the generalized partial credit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difficulty and discrimination parameters of 50 items, including the 29 preliminary items employed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original scale. Seco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and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SEM) were conducted to derive a factor structure appropriate for the domestic situation, and as a result, 24 items consisting of three factor structures (myths about victim distrust, distorted myths about of sexual consent, and myths about justification of sexual aggression) were selected. Third, the results of the measurement invariance test indicated that configural invariance and weak invariance were established, but strong invariance was not supported. Fourth, convergent validity and correlations with a criterion measure were analyzed, confirming that the AMMSA-21 scale adequately reflects beliefs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sexual aggression. By establishing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AMMSA-21,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data that may inform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Key words* : sexual aggression myths, validation, generalized partial credit model

<부록>

요인	문항	문항
피해자 불신 통념	4	여성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남성들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	여성은 가끔 실패한 부부관계를 복수하기 위해 남편을 부부 강간죄로 고소한다.
	2	여성은 종종 남성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강간 혐의로 고소한다.
	5	양육권 분쟁에서 여성들은 종종 전 남편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6	정서적 문제가 있는 여성은 종종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다.
	7	요즘 강간 혐의 중 상당수가 거짓이다.
	9	여성들은 남성의 폭력 문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8	몇몇 여성들은 강간 피해자인 척하는 것을 즐긴다.
	1	여성은 선의의 표현을 성희롱으로 쉽게 오해한다.
	11	여성은 칭찬을 성희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10	오늘날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
	13	강간을 당한 여성은 현재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
	성적 동의 왜곡 통념	19
20		술자리가 끝난 뒤, 여성이 남성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성관계를 원한다는 것이다.
22		첫 데이트에 남성을 집으로 초대하는 여성은 그와 성관계 하기를 원한다.
21		여성이 남성의 키스나 은밀한 접촉을 허용하면 그녀는 그 이상을 기대한다.
18	여성이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을 집으로 초대했다면, 이는 그녀가 성관계를 분명히 원한다는 뜻이다.	
성적 공격성 정당화 통념	28	연인 관계에서 남성이 주도하고, 여성이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26	술에 취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면, 여성도 일부 책임이 있다.
	15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들은 밤에 어두운 골목을 지나는 위험을 감수했다.
	14	술을 마신 후 강간을 당한 여성은 더 조심했어야 한다.
	12	많은 여성들은 남성의 성적인 욕구에 순응하는 것을 좋아한다.
	25	여성이 공격적인 남성과 함께 산다면,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다.
16	남성이 여성 파트너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 이는 강간이라 부를 수 없다.	